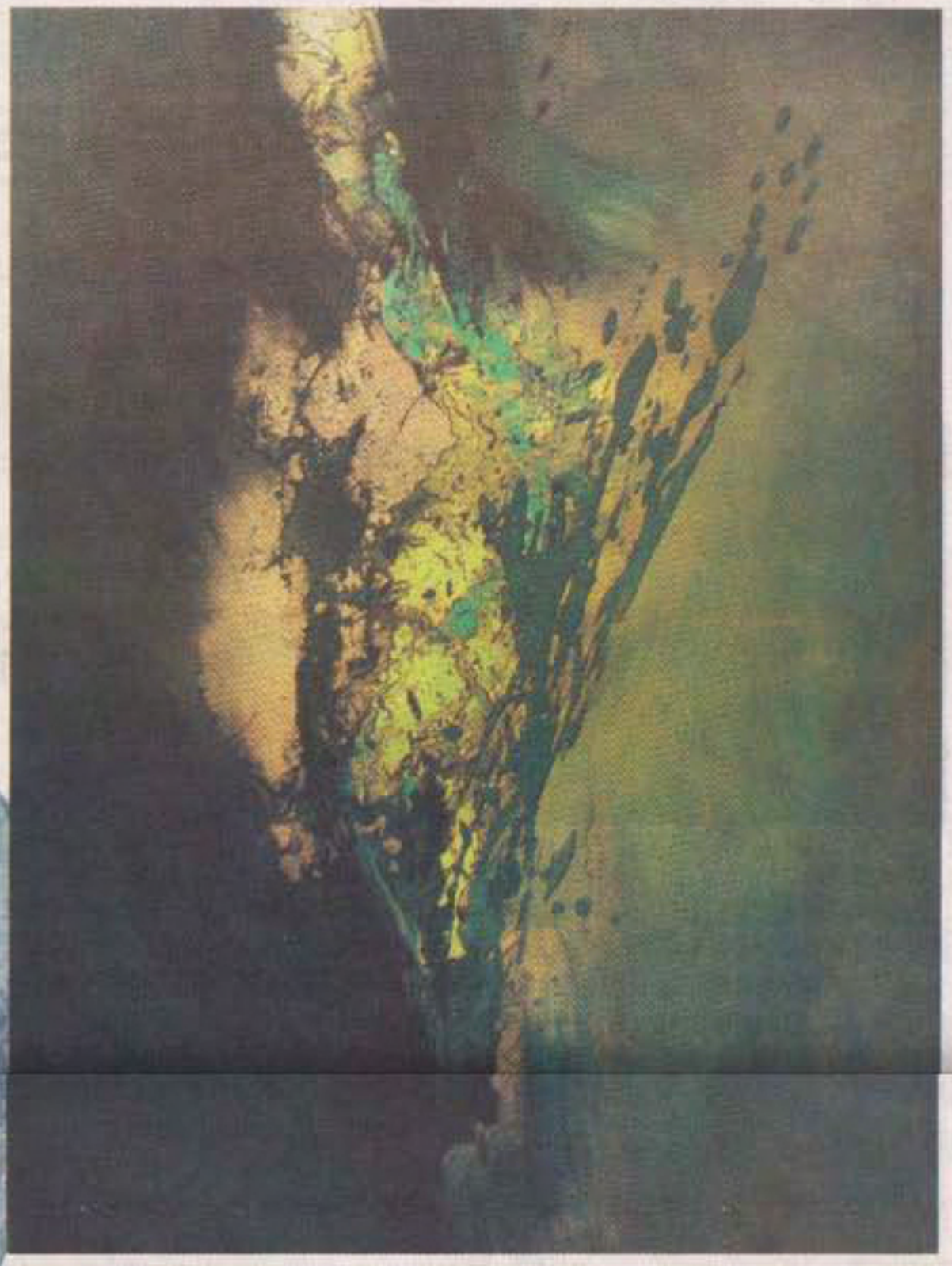
그림산책
Art journal

황수잔 전문기자/ 재독화가

인격적 두상조각

조각가 겸 화가 로란 유스-삭스(Loran Hughes-Sachs)

생명이 없는 돌(speckstein)에 높고 낮고 깊고 얕게 조각하면서 얼굴 형태가 나오고 눈, 코, 입이 나오면서 내면의 정신세계가 표출되는 과정에서 작가는 무아지경이 되어 작품에 몰입된다고 한다.



추상화, 분화(화산의)

두상조각, 모자를 쓴 여인

두상조각, 파라오1세
(고대 이집트 왕의청호)

순수성과 본질을 나타낸 두상조각, 추상화 그림 등 유스 삭스(Hughes-Sachs) 개인전이 9월1일부터 29일까지 Bad Homburg Galerie Aurum 갤러리에서 열렸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 이라고 한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내면의 모습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연륜이 깊을수록 얼굴은 사람이 삶의 기록을 나타낸 자서전과 같다. 섬세하게 조각한 인자하고 중후한 작가의 두상조각 얼굴에서 그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과 방법을 찾아 내면의 세계를 완벽하게 표현했다.

조각을 할 때는 신들린 사람처럼 몰입해서 작업한다는 작가는 신이 불어 넣어준 영감으로 그들의 내면세계를 이토록 완벽하게 표현했을까 할 정도로 경이롭다. 우아하고 품위 있는 작가의 조각 작품세계는 유럽 전통적인 클래식한 고전주의에서 사실주의 미술양식으로 가미한 역사, 문화,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각, 예술을 통해서 순수성과 본질을 표출한다고 한다.

무언의 중후한 인생철학을 간직한 두상 조각들은 탁월한 예술적인 공감과 감동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작가의 역사인식 속에서 수집된 기억들로 탄생된 그들은 마치 오랜 역사와 많은 사연을 간직한 고성처럼 품격이 있고 친근하고 편안하다. 얼굴, 눈빛, 연륜의 주름 등 얼굴표정을 통해 인격적인 내면세계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들 모두는 성숙한 인격체로 겸손하고 차분해 보인다. 작가의 깊은 애정과 정렬을 쏟아 조각한 두상들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그 시대 분위기를, 그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형체 없는 석공을 이용해서 생생하고 디테일하게 조각한 완벽한 예술성에 관객들은 감격하게 된다.

그림 앞에서 작기와 함께 필자

사실화에서 추상화로 전향한 그림들은 다양한 기법처리로 작품들을 제작한다. 혼합매체방법으로 철 화합 물 안료, 아크릴, 모래를 이용하기도하고 튜브에 락스를 넣고 캔버스에 뿌리기도 한다. 각층을 만들기 위해서 염료를 반복해서 칠하고 층을 만들고 실버와 블랙으로 환상의 길로 열어간다.

작가의 작품세계

유스 삭스 작가는 Trier 태생이며 독일,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 작가는 Maryland 미국 미술대학 Yvonne Prinle 교수, 독일 Wiesbaden 미술대학 Heiner Rothfuchs 교수, 영국 미술대학 Lan Hunter 교수에게서 미술과 디자인을 전공했다. 졸업 후 독일인 남편과 독일에서 살고 있다. 작가는 Hofheim 아틀리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독일, 영국, 핀란드, 미국 등 국제적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평면회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들을 병행하고 있다. 생명이 없는 돌에 눈, 코, 입 등 조각하고 얼굴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한다. 그렇게 하나 하나 정성껏 다듬어낸 중후한 두상조각들은, 내면을 파고드는 섬세한 묘사력과 철학적인 표정, 그 덩어리 속에서 심오한 인간의 내면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과 우주 속에서 지역에서 작가의 경험과 영감으로 작품 모티브를 찾는다. 순간적 영감이 떠오르면 메모를 하거나 즉시 작품으로 시도한다고 한다.

특히 작가는 문화, 역사인물에 관심이 대단하다.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을 부각 시키고 자신의 예술세계에 접목시킨다. 작가의 중후한 두상조각들은 외형뿐만 아니라 내면세계인 문화, 역사, 연륜, 인격, 감정 등 모두를 포함해서 완벽하다.

인간의 고뇌와 감정표현을 내면 깊숙이 표현한 유명한 일본작가 가모이 레이(1928-1985) 초상화처럼 거칠고 부드럽고 섬세한 얼굴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 인격체로서 내면의 세계가 보인다.

고전파, 리얼리즘을 가미한 표현양식으로 생명이 없는 돌(Speckstein)에 높고 낮고 깊고 얕게 조각하면서 얼굴의 형태가 나오고 눈, 코, 입이 나오면서 내면의 정신세계가 표출되는 과정에서 작가의 정신세계는 무아지경이 되어 작품에 몰입된다고 한다.

끝없는 열정을 가지고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작품을 시도하는 작가의 창조세계는 항상 새롭고 다양하다. 잔잔한 음악과 아름다운 소녀들이 보인 환상적인 발레 공연으로 작품과 함께 하모니를 이룬 인상 깊은 새로운 오프닝 이벤트행사였다.